

貯蓄……이대로 좋은가

孫 正 植

〈漢陽大學校 教授·經博〉

1. 貯蓄의 意義

일반상식적으로 貯蓄이라면 은행 預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經濟學的으로는 소득 가운데 消費하지 않은 나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定義한다. 소비하지 않은 소득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은행에 預金할 수도 있으며 物品을 구입하여 보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각각 現金貯蓄, 金融貯蓄, 그리고 實物貯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은행예금만이 貯蓄이 아님을 볼 수 있다.

비록 저축은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세가지 形態가 있는데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現金貯蓄은 언제든지 원하면 物品을 구입하는데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換金性이 제일 큰 반면에 보유하고 있는 동안 利子所得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고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實質價値가 하락한다. 金融貯蓄은 이자소득을 얻는 반면에 換金性이 현금에 비하여 낮고 또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때 실질가치가 하락한다. 實物貯蓄은 인플레이션 진행시에 實質價値 하락 우려가 적은 반면에 換金性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자소득이 없다. 다만 실물의 가격이 상승하면 資本利得(賣買差益)을 얻을 수가 있다.

저축 수단 사이에 이러한 각기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저축하려는 사람은 각기 자기의 필요에 따라 저축 수단을 선택하게 된다. 물론 오직

한가지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각 수단을 적절히 혼합하여 저축한다.

2. 貯蓄과 經濟

貯蓄은 일국 경제 전체로 보거나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거나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우선 전체 경제적인 면에서 저축은 이른바 「貧困의 惡循環」을 절단시키는데 필요하다. 貧困의 惡循環을 저축으로 부터 시작해 보자. 貯蓄水準이 낮으니 投資할 자금이 없어서 投資水準도 낮고, 그에 따라 資本蓄積이 되지 않으니 경제가 成長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所得水準도 낮고, 그러니 貯蓄水準도 낮아져 빈곤의 악순환이 다시 되풀이 된다.

이러한 惡循環을 절단하기 위하여 貯蓄, 특히 金融貯蓄이 不可缺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經濟開發計劃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던 1960년대만 하더라도 國民所得 수준이 낮아서 정부는 國內貯蓄 이외에 海外貯蓄을 동원하여 資本蓄積을 시도하였다. <表-1>에서 보는 바와같이 國內投資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海外貯蓄을 통하여 뒷받침했다.

經濟成長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海外貯蓄의 動員(借款)은 國內 通貨量의 增發을 초래하였고 그것은 심각한 國內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으며 장기적으로는 國內貯蓄性向을 크게 低減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國民貯蓄과 海外貯蓄

〈表-1〉 (단위 : %)

	62~66	67~71	72~76	77~81
國內貯蓄	55.1	60.2	62.4	76.8
海外貯蓄	44.9	39.8	37.6	23.2
總投資	100.0	100.0	100.0	100.0

資料 :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또한 海外借款을 통한 기업의 資金調達로 國內金融機關의 國內貯蓄 動員 誘因을 크게 감소시켰다. 물론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한 國內資本 動員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별로 큰 成果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요한 경제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인데, 이것은 貯蓄과는 「병아리와 달걀」 같은 문제이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貯蓄이 감소하지만 만약 저축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진정된다. 그래서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말이 맞는 한편,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하여는 貯蓄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말도 맞다.

그래서 앞으로 物價가 安定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貯蓄을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日本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때에 보다 貯蓄을 증대시키는 국민으로 알려져 있다. 그 理由는 일정한 수준의 實質貯蓄目標을 설정해 놓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으로 그 목표에 차질이 생기게 되니 더욱 더 저축을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安定的인 국가가 되었다.

國內貯蓄의 중요성은 累增된 外債의 辨濟라는 측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外債를 갚기 위해

서는 國內經常 計定에서의 剩餘, 즉 貯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外債規模는 1980년에 235億弗이었는데, 1983년 末에는 400億弗을 상회하였다. 물론 外債의 절대적 규모만 보고서 外債問題를 논의할 수는 없다. 다만 外債를 절대적인 규모로 볼때 그것이 많은 수준이면 國際經濟 與件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支給能力이 급속도로 낮아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國內적으로 經常剩餘를 造出하도록 하는 한편, 國際적으로는 外換稼得額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外債問題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國內貯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認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貯蓄의 重要性이 있는 것이다.

3. 우리나라의 貯蓄推移

우리나라의 貯蓄狀況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이웃나라인 日本과 臺灣의 貯蓄率과 우리나라의 저축률을 〈表-2〉를 통하여 비교하여 보자. 先進國의 일원이 된 日本의 경우 70年代 초반에는 38%라는 높은 貯蓄率을 보였다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30%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開發途上國의 하나인 臺灣의 경우 30% 水準에서 머물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들보다 10% 포인트나 낮은 20%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消費水準이 소득에 비하여 이웃 국가의 경우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貯蓄推移를 〈表-3〉을 통하여

貯蓄率의 國際比較

〈表-2〉 (단위 : %)

	71~73	74~76	77~79	80~82	平均
韓 國	18.0	21.0	28.0	22.0	21.7
日 本	38.1	34.0	32.6	31.6	34.6
臺 灣	31.8	30.4	34.3	31.6	31.6

註 : 3年平均値

資料 : 經濟企劃院

貯 蓄 率 推 移

<表-3>

(단위 : %)

	62~66	67~71	72~76	77~81	82~83
國內貯蓄率	9.2	15.6	20.3	18.7	23.4
民間	8.1	10.0	16.2	17.1	16.8
政府	1.7	5.6	3.4	6.4	6.7
海外貯蓄率	8.1	10.1	6.8	5.9	3.7
總貯蓄率	17.2	21.3	26.6	30.7	27.3

註：國民總生產額에 대한 貯蓄百分比임.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살펴보자. 우리는 國民所得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貯蓄率도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다만 그 절대적인 수준이 日本이나 臺灣에 비하여 낮다는 것은 앞에서 기술한 바 있다.

이 表를 통하여 政府貯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저축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데 외국의 경우와 대비해 보기 위하여 <表-4>를 만들어 보았다. 이 表에서 우리는 日本이나 臺灣의 경우에 비하여 家

貯蓄主體別 貯蓄率比重

<表-4>

(단위 : %)

	70~72	73~75	76~78	79~81
家 計				
韓國	22.4	33.0	40.6	33.5
日本	30.2	43.6	47.0	42.8
臺灣	43.4	41.5	38.4	39.2
企 業				
韓國	45.5	50.5	38.0	40.2
日本	53.2	41.2	47.2	48.8
臺灣	40.3	35.2	36.9	36.8
政 府				
韓國	32.1	16.5	21.8	26.3
日本	16.2	15.2	5.8	8.4
臺灣	16.0	23.3	24.7	24.3

註：各國의 貯蓄率에서 차지하는 百分比率

資料：經濟企劃院

計貯蓄의 비중이 대단히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日本에 비하여 政府貯蓄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臺灣과 비교하여 企業貯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3. 貯蓄增大 方案

1) 安定基調 維持

經濟發展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는 資本蓄積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하여는 貯蓄의 계속적인 증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서 시행된 정부의 경제정책은 장기적으로는 貯蓄與件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예로 海外貯蓄을 통한 資本調達政策을 들 수 있다. 海外貯蓄(借款)의 國內流入은 本源通貨量의 증발을 초래하여 國內通貨量을 증가시켰고 그것은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다. <表-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物價上昇率은 日本이나 같은 開發途上國인 臺灣 또는 싱가포르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高率의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었기에 국민들의 金融貯蓄 誘因이 크게 沮喪되어서 국내저축의 증대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富의 實質價値를 保全하기 위한 實物貯蓄이 주로 주택이나 토지에 집중되다 보니 그 부문에 換物投機가 일어서 金融貯蓄 유인을 더욱 沮喪시켰다고 생각한다.

다행히도 정부는 80年代에 들어와서 成長보

各國의 物價騰貴率

〈表-5〉

(단위: %)

	63 ~ 67	68 ~ 72	73 ~ 77	78 ~ 82
韓 國	11.0	12.8	15.7	18.0
日 本	4.3	5.8	13.1	3.7
臺 灣	1.0	4.4	14.1	7.0
싱 가 폴	1.8	0.9	10.6	5.9

註: 消費者物價指數 年上昇率
資料: IMF

다는 安定에 정책의 優先順位를 두어 緊縮政策을 강화한 결과 物價上昇率이 GNP 디플레이터 기준으로 1981년에는 15.9%였는데, 1982년과 1983년에는 각각 7.1%와 2.9%로 安定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貯蓄을 위한 與件은 조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安定基調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비록 物價水準이 安定되어서 金融貯蓄의 實質價值 하락에 대한 우려는 크게 감소되었지만, 金融貯蓄은 항상 實物貯蓄과 代替關係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그것은 金融貯蓄으로 인한 수익률과 實物貯蓄으로 인한 수익률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금융저축과 실물저축의 選好比重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金融貯蓄의 수익률이 실물저축의 수익률을 상회하도록 金利를 인상조정하거나 아니면 실물저축의 수익률을 금융저축의 수익률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前者의 방식은 그것이 投資, 나아가서는 金融費用의 인상을 통한 우리나라 상품의 國際競爭力 弱화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서 大幅의인 인상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實物投資 收益率의 증가억제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實物貯蓄 手段으로 선호되는 아파트, 토지, 농산물, 해산물 등등이 投機化되어서 資本利得을 얻는 사례가 많다. 이는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行態이다. 따라서 정부는 投機問題의 原因을 치유해야만 한다. 또한 개별 국민 각자도 投機를 통한 富의 價值保全 또는 增殖은 個人 사이의 富만을 再分配할

뿐이지 富가 創出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여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경제생활을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겠다.

2) 金利調整

우리가 보통 金利라고 할 때에는 자금을 차입하여 投資할 때 얻는 收益率과 자금 貸與에 따르는 危險負擔, 借入者의 信用調査費用 그리고 物價上昇에 따른 價值喪失 補償分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금리는 이 모든 구성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총괄개념으로만 발표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인식된다.

기업가들은 金利가 주로 生産性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서 金利를 인위적으로 인상조정하려면 生産性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세워 抑制措置를 기대한다. 물론 貯蓄者들은 인플레이션의 補償 등이 금리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때에 金利 상승을 요구한다. 그래서 金利調整은 貸與者와 借入者의 利害가 대립되므로 論難이 많게 된다.

그러나 金利問題는 巨視經濟的 立場에서 고려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래서 금리문제를 高金利나 低金利냐의 兩者擇一 문제로 보기 보다는, 현재의 金利水準이 適正水準인지 그리고 適正하지 못하다면 그 調整幅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야겠다.

현재의 금리수준은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여러가지 악영향과 副作用을 감안할 때에 低金利수준이라고 생각된다. 低金利時期에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耐久消費財에 대한 소비증대, 遊目

의消費의 증가, 不動産 投機 증가 현상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實物消費과 實物貯蓄에 비하여 金融貯蓄에 대한 收益性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金利의 上向調整이 단기적으로는 金融費用을 증가시킬 소지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企業의 借入資本 비중을 낮추어서 金融費用을 감소시킬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金融貯蓄의 증대로 기업에 대한 公金融機關의 자금공급 능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또한 金利의 上向調整은 資金의 效率의 配分에 기여한다.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은 자금의 절대적 공여량 증대와 마찬가지로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금리상승은 非效率의 部門에 대한 자금공여가 감소함에 따라 보다 效率的인 部門에 대한 자금의 공여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金利上向調整은 實物消費과 實物貯蓄의 機會費用을 상승시키므로 金融貯蓄의 증대에도 기여한다. 또한 私金融市場에 대한 자금의 공여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 公金融機關에 대한 貯蓄이 증대될 것이다.

3) 金融機關의 活性化

1960년대와 70년대를 걸쳐서 정부는 金融機關을 통하여 國內貯蓄을 증대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했지만 별로 큰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정부가 금융기관을 국유화하여 금융기관 종사원을 準官僚化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創意的인 貯蓄商品의 개발도 부진하였다. 비록 預金目標割當制 등을 통하여 저축증대를 독려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貯蓄與件도 나뉘면서 魅力的인 貯蓄商品도 개발되지 않아서 금융기관의 저축증대 노력은 제로섬(zero sum) 게임, 즉 한 예금구좌의 예금증가는 다른 예금구좌의 예금감소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으리라고 본다.

이제 物價安定으로 저축여건도 좋아져가며 銀行도 民營化되어 자율적으로 자금의 조달을 시도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貯蓄增大를 위하여 創意的인 貯蓄商品의 개발과

金融貯蓄의 國際比較

<表-6>

(단위: %)

	76~77	78~79	80~81
韓 國	20.9	22.8	26.5
싱 가 폴	35.2	35.4	45.3
日 本	52.3	55.2	60.0
西 獨	38.3	38.7	38.2
이탈리아	39.9	39.3	32.8

註: (貯蓄性預金 / GNP) 比率

資料: IFS

販賣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겠다.

<表-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金融貯蓄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저축수준을 증가시킬餘地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아울러 시사하고 있다.

金融機關 특히 銀行은 지금까지 預金顧客과 貸出顧客을 구별하였는데 이제 預金顧客에게도 貸出서비스를 공여하므로써 비록 預金の 收益性이 낮다하더라도 貸出서비스 誘因 때문에 예금고객이 金融貯蓄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아울러 은행은 단골고객 특히 장기간 은행과 거래한 단골고객을 優待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銀行員들이 成果에 상응하여 그 代價를 받을 수 있는 報償體系를 정립시키는 것도 금융기관 活性化의 한 方法이겠다.

4) 家計貯蓄의 증대

앞에서 우리나라의 家計貯蓄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현상을 보다 확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家計可處分所得을 기준으로한 貯蓄率을 <表-7>을 통하여 살펴 보자. 우리나라의 家計可處分所得에 대한 貯蓄率은 평균적으로 日本과 臺灣의 절반 수준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저축의 증대를 시도할 때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할 部門이 바로 家計部門임을 시

家計貯蓄率推移

<表-7>

(단위: %)

	70~72	73~75	76~78	79~81	平均
韓 國	5.8	9.9	15.4	11.6	10.6
日 本	18.1	22.2	21.3	19.2	20.2
臺 灣	18.1	19.1	18.8	18.0	18.5
西 獨	16.8	14.7	13.4	13.3	16.1

註: 家計可處分所得의 貯蓄比率

資料: 經濟企劃院

사해 주고 있다.

家計의 저축성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는 巨視經濟의 政策考慮 이외에 개인의 時間地平線(time horizon)이 보다 장기화되어야겠다. 換言하면 각 개인이 현재소비를 할 것인가 또는 장래소비(貯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시간이 장기화되어야겠다. 가능하면 一生所得을 기준으로 매년간의 소비와 저축을 결정하는 의식이 깃들여져야겠다. 時間地平線이 짧으면 現在消費의 비중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예를들어 장래 자녀의 大學教育費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생활 태도가 있어야 겠고, 中年이라 하더라도 老後에 대비하여 貯蓄하는 생활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將來란 단순히 運命으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 장래를 창조하기 위한 合理的 生活設計가 필요한 것임을 국민 각자가 인식할 때 가능할 것이다. 물론 국민들이 장기생활설계를 하도록 권유하기 위하여는 인플레이션 퇴치 등 장계설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요인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5) 資本主義 倫理觀 確立

資本主義는 資本蓄積을 통하여 經濟를 성장발전시키면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資本蓄積은 소득의 증대와 소득 가운데 貯蓄의 증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또 所得은 각자 자기의 職分을

召命으로 알고 자기 직분에 충실할 때 커지는 것이며 貯蓄은 근검절약하는 消費行態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召命意識을 가진 사람은 자기 직업에 성실하고 근면하게 종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收益을 증대시킬 수가 있고 그 收益을 召命意識에 대한 神의 댓가로 인식하게 되므로 浪費하지 않고 貯蓄할 것이고 그것은 資本蓄積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資本主義 精神이고 倫理이다.

우리는 지난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서 收益을 極大化한다는 資本主義 原理가 經濟行爲의 목적이 된 반면에 資本主義 精神은 망각해 버린 사례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일부 재벌들의 호화분묘, 과열과외, 과열훈수 등이 모두 그러한 예들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指向하며 추종하고 답습하려는 우리 사회 上流層의 낭비적인 생활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범을 보여 주었으며 나아가서는 國內貯蓄 基盤의 弱화를 초래한 한가지 요인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회의 상류층이 浪費에 젖어 방탕하게 될 때 國運이 기운 예를 보아왔다. 統一新羅의 大業을 이루었던 신라의 貴族들이 唐나라의 호화로운 文物에 빠졌을 때 망하게 되었고, 高麗도 元나라의 사치스러운 文物에 빠졌을 때에 멸망하였으며, 로마帝國도 귀족들이 향락에 빠지게 되자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의 지도층일수록 먼저 근검절약하는 생활태도를 보여야 하리라. ♣